

돌고래를 위한 작은 실천



돌고래 전시시설을 관람하지 말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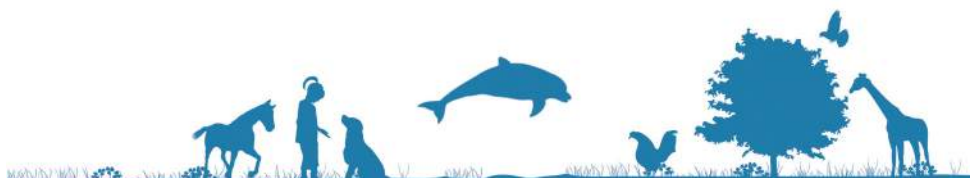
돌고래 전시나 체험 시설의 입장권을 사는 순간 돌고래를 포획, 거래, 전시해서 상업적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 지속되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돌고래 전시 산업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표를 사는 사람이 있는 한 포획과 전시는 계속됩니다. 소비자가 산업의 잔인성을 인식하고 입장권을 사지 않으면 돌고래 전시 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수족관의 돌고래를 관찰하며 돌고래를 배운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를 보고 쥐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 릭 오베리(Ric O' Barry)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 학대의 방지와 구조,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동물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사회현장 고발 및 인식재고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 806201-04-005468 (예금주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농협 : 015-17-002592 (예금주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facebook.com/animalkorea

 twitter.com/animal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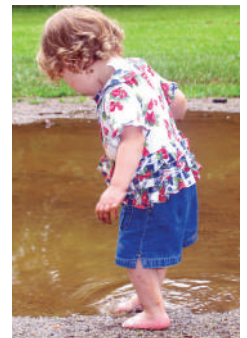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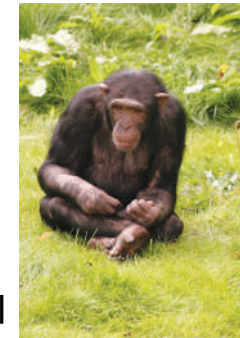
하루에 160 킬로미터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좁은 수족관 안에서 무슨생각을 할까요?



돌고래쇼 **중단!**
돌고래를 **바다로!**



돌고래는 어떤 동물?



돌고래의 지능은 오랑우탄, 침팬지 등의
영장류나 인간의 영아와 같은 수준!

돌고래는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의 하나이고, 자의식이 있으며 관념적 사고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100마일 이상씩 이동을 하며 굉장히 다양한 어류를 섭취하지만 포획된 상태에서는
1~2 종류의 죽은 물고기 밖에 먹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간에 강하고 복잡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

돌고래는 사회적으로 끈끈한 연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평생을 가족으로 이뤄진 한 무리 안에서
생활하며 보냅니다. 돌고래를 포획해서 사육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것이 한 가족을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동족과 교류하면서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등의 습성을 보인답니다.

돌고래 포획의 잔인성!



**돌고래의 민감한 청력을 이용!
공포심 유발, 방향감각 손실하게 해...**

돌고래는 생포를 해야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사냥꾼은 비행기, 배, 작살, 폭발물 등의 소음을 사용해 인간보다 몇 천 배 민감한 청각을 가진 돌고래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방향감각을 잃게 합니다. 이러한 포획을 통해서 돌고래들은 치사율이 6배나 상승할 정도로 죽음만큼의 격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느낀다고 증명됐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포획된 돌고래 뿐 아니라, 그 돌고래가 속한 무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돌고래들이 포획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돌고래들은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고래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생포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쇼장에 거래 or 살육!

연안으로 내몰린 돌고래. 사냥꾼들은 전 세계의 돌고래 수족관과 돌고래 쇼장에 팔기 위한 돌고래들을 고릅니다. 나머지는 살육당해 고농도의 수은 축적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고래고기로 팔려나갑니다.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돌고래들은 종종 자신들의 가족과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실제 캐나다 연안에서 시애틀의 수족관에 팔려가기 위해 잡힌 고래 '나무'는 철창에 갇혀서 운송되는 내내 그의 가족들이 배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수족관의 잔인성!

비좁고 제한된 공간!

하루에 160 킬로미터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하루 아침에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만 한 크기의 수족관에 갇힙니다. 좁은 수족관 벽에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포획된 돌고래의 절반을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합니다.



사진 _ 한겨레(강재훈 선임기자)

화학물질이 첨가된 소독물에 노출!

돌고래의 배설물을 소독하기 위한 염소 등 화학물질로 유지되는 수족관의 물로 인해 돌고래들은 피부가 벗겨지고 심지어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

제한된공간과 인위적이고 단조로운 환경, 죽은 먹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돌고래들은 작은 원 모양을 그리며 반복적으로도는상동증과 무기력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상 행동을 흔하게 보입니다.



사진 _ 한겨레(강재훈 선임기자)

죽은 먹이로 인한 질병!

자연상태의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이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사육 돌고래는 죽은 먹이를 공급받는 등의 스트레스로 만성 위장병에 시달립니다. 위장병에 시달리는 돌고래들에게는 위장약을 넣은 생선이 급여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돌고래는 물 안에서 임신부 뱃속의 태아의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쇼장에서 듣는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과 청중의 함성은 참기 힘든 고문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돌고래 중 반 이상이 포획 도중이나 감금 상태에서 내장 기관 질병, 염소 중독, 또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폐사합니다.



제주도의 돌고래 체험장 :조련사가 꼬리지느러미를 잡아 움직임을 구속한 상태로 관람객들이 만지도록 함

일본에서 돌고래 대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최근 3년간 2배로 늘어난 돌고래 수족관, 야생돌고래 수입 금지 시급

2013년 불법포획돼 쇼에 이용되던 돌고래 3마리가 바다로 돌아갔지만 지난 3년간 돌고래 수족관과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수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개 수족관에 53마리의 돌고래가 감금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족관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 공연보다 인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람객의 손길에 직접 노출되는 '체험'은 돌고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관람객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돌고래 수족관 전시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전시용 돌고래 포획과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